



코스모스밭의 가을 추억 만들기
완연한 가을날씨를 보인 20일 광주시 북구 충효동 평모들에 만개한 코스모스밭 사이로 시민들이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산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18 특조위 실무지원단 10여명 광주 방문

전일빌딩·옛 도청 등 5곳 현장조사

지난 13일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9명·특조위)가 광주를 방문한 데 이어 19일에는 이들을 지원하는 '실무조사 지원단'이 광주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 조사를 벌였다.

광주를 비공개로 방문한 10여명 규모 조사지원단은 지난 19일 오전 국립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전일빌딩(옛 광주일보 사옥), 옛 전남도청 등 5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했다.

이들이 전일빌딩, 옛 도청 등을 둘러 본다는 점으로 미뤄 헬기 사격 등 관련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지원단은 조사지원단, 헬기 사격 조사팀, 전투기 출격대기 조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군인 17명, 공무원 2명, 광주시 추천 민간조사관 4명, 검찰·경찰·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 6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를 방문한 실무지원단에는 상당수 군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을 올해 말까지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특조위는 20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제보 접수에 나섰다. 제보 대상은 ▲ 헬기 사격 목적 ▲ 헬기 사격으로 인한 피해 ▲ 헬기 사격에 직·간접적 관여 ▲ 전투기에 무장한 채 출격대기 목적 ▲ 전투기 출격대기에 직·간접적 관여 ▲ 관련 자료 보관 등이다. 제보는 특조위 전화(02-748-0974~7), 이메일(uk8900752@mnd.go.kr) 또는 광주시(062-613-5386~7, chormoi@korea.kr)로 하면 된다. /김희희기자 kimhy@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北 완전파괴 외 다른 선택 없다”

트럼프 유엔 연설 집중포화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에서 19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연설을 했다.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유엔 회원국 정상들을 모아놓고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첫 무대라는 점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북한을 비난하는 데 할애했다. <관련기사 2면>

북한 문제를 언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는 격양됐고 수위도 아주 강경했다. ‘완전파괴’, ‘자살임무’, ‘로켓맨’ 등 세계 최강대국 정상이 한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자극적인 단어들도 동원됐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에 협조해달라는 주문도 포함됐다.

이런 위협에 대해서도 적잖이 발언했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는 이례적으로 5분이 넘는 시간을 할애했다. 이번 유엔 총회를 북한에 대한 최후통첩식 경고를 전달하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듯한 인상을 줬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경고에 대해 “미국의 대통령이

2500만 명 인구의 한 나라를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연설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유엔의 위상과 가치를 폄하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 데뷔전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 같은 노골적 비판은 자제했으나 부정적 인식은 여전했다. 미국이 유엔 분담금을 불공정하게 많이 부담한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는 불공정한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유엔) 예산의 22% 이상을 낸다. 사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낸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에 대해 “모든 목표를 실제로 달성한다면, 이러한 투자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유엔이 훨씬 더 책임 있고 효율적인 세계 자유의 옹호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피할 수 있었던 죽음, 전남이 전국 최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낙후도 높을수록 회피가능사망률 높아 공중보건 등 열악...고령·보성 절반 예방·치료 못해 사망

고령과 보성지역의 사망자 2명 중 1명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적절한 치료나 예방을 했다면 사망자 중 45%는 죽음을 맞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역별 사망률에 따른 회피가능사망률 격차와 함의’ 보고서에서 지역별 사망률이 클수록 해당 지역의 총사망률과 회피가능사망률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사망지수는 한 지역의 사망률과 결핍 수준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주거환경의 낙후 정도와 교육 수준, 노인 인구·1인 가구, 아파트 거주·여성 가구주, 이혼 및 사별 비율 등을 종합해 점수화했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대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표다.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사망지수는 신안군 15.86, 고흥군 15.28로 상위 1·2위를 차지했다. 이어 함평군(14.82), 보성군(14.71), 곡성군(14.00), 진도군(12.74), 강진군(12.57), 장흥군(12.41), 구례군(12.32) 순이었다.

반면 광양시(-5.26), 목포시(-2.81), 순천시(-2.77), 여수시(-0.03)는 사망지수가 낮았다. 시(市)단위가 군(郡)단위보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다는 뜻이다.

이 사망지수를 지역별 ‘회피가능사망률’(예방가능사망률+치료가능사망률)과 비교한 결과, 사망지수가 높은 지역의 회피가능사망률은 최고 45.7%, 낮은 지역은 최저 36%로 격차가 무려 9.7%포인트가 났다.

회피가능사망은 조기 사망(75세 이전 사망) 중 적절한 치료나 조기 검진, 정부의 건강 정책 등이 선행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을 뜻한다.

2013년 기준으로 담양지역 주민의 총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57명인데, 이 중 회피가능사망률은 165명으로 46.3%에 달했다. 이들은 적절한 치료나 예방 했다면 죽음을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흥군은 인구 10만명 당 총 사망률 486.6명으로 이 중 45.7%인 222.3명(예방 192.6명, 치료 76.2명)이, 보성군은 총 사망률 398.3명 중 179.3명(45%)이, 진도군

은 총 사망률 412.4명 중 184.2명(44.7%)이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을 맞았다.

이들 회피가능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사망지수가 높았다.

우리나라 총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77.1명인데, 이 중 회피가능사망률은 138.5명으로 36.7%였다. 전국 평균인 36.7%보다 낮은 전남 지자체는 순천시(36%)와 광양시(36.7%) 두 곳뿐이었다. 나머지 지자체는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이는 피할 수 있는 데도 죽음을 맞이한 곳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전남의 공중보건의 열악하다는 방증이다.

전남지역 내 회피가능사망률은 사망지수가 높은 고흥군(2위)이 222.3명에 달한 데 비해 사망지수가 낮은 순천시(20위)는 138.3명에 불과했다.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을 겪은 사망자 수가 고흥군민이 순천시민에 비해 1.6배가 많았다는 얘기다.

보건사회연구원은 특히 회피가능사망률에서도 ‘예방가능사망률’이 사망지수와 더 큰 연관성을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예방가능사망은 감염, 당뇨병, 알코올·약물 남용 등에 의한 사망처럼 공중보건 정책으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망을 뜻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지자체 사망지수와 사망률(단위:%)
() 사망지수 회피가능사망률 총사망률

신안(15.86)	187.1	473.2
고흥(15.28)	222.3	486.6
함평(14.82)	166.3	433.5
보성(14.71)	179.3	398.3
곡성(14.00)	162.2	401.4
진도(12.74)	184.2	412.3
강진(12.57)	217.3	505.8
장흥(12.41)	181.9	433.9
구례(12.32)	186.9	428.3
해남(11.32)	167	445.5
담양(10.70)	165.3	356.9
완도(10.52)	160.1	417.8
장성(9.99)	190.3	468.2
나주(9.90)	200.7	459.6
영광(9.02)	156.5	418.5
화순(7.08)	161.1	415.9
영암(6.15)	176.6	407.9
무안(5.41)	201.7	459.8
여수(-0.93)	148.8	404.7
순천(-2.77)	138.3	383.6
목포(-2.81)	163.4	440.7
광양(-5.26)	139.7	380.6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분이나 사망하신 분의 유족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접수처 :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종합 지원센터
신청방법 : 우편, 방문접수, 홈페이지
홈페이지 : http://www.healthrelief.or.kr
광주광역시 관련 문의 :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 062-613-4161

2017년 8월 9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법률의 주요 내용

구제급여 종류 확대

기존 4개	추가 3개
요양급여	특별유족조위금
요양생활수당	특별장의비
정의비	구제급여조정금
간병비	

특별구제제정 설치·운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 분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제제정 설치·운영

센터 설치·운영

◎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 피해지 지원업무, 구상권행사, 건강모니터링 등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 의료상담 및 지원, 건강피해 조사·연구 등

피해구제위원회

건강피해에 대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
건강피해인정 등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폐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폐의질환 조사판정 전문위원회」 운영

환정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광주광역시